

보도해명자료	보도일시	2017년 8월 21일(월) 배포시
	담당자	표초희 홍보팀장(044-550-4027, choice@kdi.re.kr)
	배포일시	2017년 8월 21일(월)
	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한국경제 12일자 「정부-강동구 '9호선 4단계 연장 갈등 증폭」 제하 보도 관련 해명

<보도 내용>

- 한국경제는 12일자 「정부-강동구 '9호선 4단계 연장' 갈등 증폭」 제하 기사에서 “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벌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하철 승객을 서울~세종 고속도로 차량 이용자들로 상당 부분 뺏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”라고 보도

<KDI 입장>

- KDI는 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’ 제9조에 의거, 수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잠정 분석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음.
 - 예비타당성조사가 객관적,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공식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기초한 보도는 신중을 기할 필요
- 다만, 위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막고자 다음과 같이 해명함.
 - KDI는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“지하철 승객을 서울~세종 고속도로 차량 이용자들로 상당 부분 뺏길 것이라는 분석”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.